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가족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삶의 자리는 환경적으로 볼 때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 속에서 살다보면 사람도 건조해지고 또 까칠해 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고 근거리로 잠시만 나가보면 너무도 다양하고 또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일상의 자리 떠나 느끼게 되는 모처럼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고 또 느끼곤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책망이 나난 위로와 격려로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랑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나 제 안에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녀 됨을 통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됨의 특권을 이모양 저모양으로 누릴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 이스라엘 건국 68 주년 vs 팔레스타인 독립투쟁 68 주년

지난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설움을 겪으며 이리저리 삶의 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던 유랑 생활이 청산되고 마침내 유대인 민족국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올해로 이스라엘은 건국 6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이스라엘 국기가며칠씩 거리에서 휘날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잠시 옆으로 돌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슬픔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매년 목격하게 되는 같은 공간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두 민족이 처한 상황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는 아픔과 깊은 갈등의 골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변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땅의 믿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위로하며 감싸주는 사랑과 섬김이 작게나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머지않은 날,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복음 안에서 실현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두 손 모아 주십시오.

### ■ 다시 시작한 G.T.I(Gospel Trail in Israel) 사역

이 땅을 다시 찾은 이후 한동안 G.T.I 사역을 나가지 못했는데 5월 달에 접어들면서부터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저 혼자 나가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선임 목사님이 이 길에 함께 동행 해주셔서 얼마나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1~24절의 말씀은 G.T.I 사역의 성경적 배경이 되며 또한 사역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각 동네와 지역들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가운데 명하신 바를 실천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 듣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 ■ 베두원 마을 이야기

기도해주신 덕분에 베두원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여리고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갖게 된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무척이나 행복해 했습니다. 주거지역 주변으로 쉽게 물놀이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한철 시원한 물놀이는 아이들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세상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많이들 움츠려들었는데 이제는 여유도 있어 보이고 또 나름 그 속에서 즐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경험케 함으로 그 속에서 보다 넓은 세상의 크기를 알아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신선한 자극과 충격들을 받고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꿈을 그 속에서 찾고 또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께 꿈꾸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타마르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베두원 마을 철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도움의 손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이사랴에서



도하, 단아, 담희



이스라엘 건국 68주년



동역자와 함께 한 G.T.I



베두원 마을 여리고 소풍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G.T.I 사역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또 만남을 통한 열매가 맺히도록
2. 요압 아저씨 가정과 야곱(마아안)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3. 베두원 마을 철거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4. 타마르 프로젝트(베두원 아이들 교육 사업)의 재정비와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가정 안에서의 홈스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섬기는 부모가 되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mailto: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mailto: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mailto:jaesuk96@gmail.com)

-----  
#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